Weekly
FX Economis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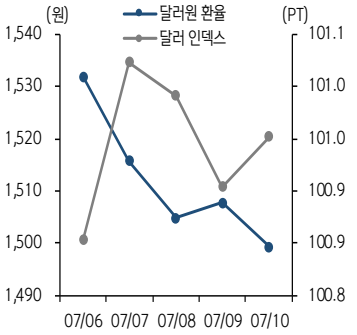
2026-07-13

방망이 길게 잡은 한은, 백투백 노리나?

FX Talk & Insight : 금주 1,495~1,525원 전망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으로 유입될 달러화 자금이 초기에 대거 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달러·원 환율은 한때 1,500원을 하회. 일방적 환율 상승세 한풀 꺾인 듯하나, 대내외 변수 많아 추세 전환 여부에 시간 필요. 14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핵심 CPI는 하방 경직될 소지, 시장은 16일 금통위 금리인상 기정사실화.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물리적 공격을 주고받으며 휴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 자극 소지

외환시장



260억달러가 넘는 달러 공급 요인으로 기대되는 하이닉스의 ADR 상장 선반영과 한일 외환당국의 공조 가능성 등에 힘입어 달러-원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하회하는 등 환율 상승 일변도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듯한 모습이다. 다만 AI발 증시 과열과 반도체 고점 논란에 시달리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계속되는 한편,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로 순조로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희석되며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에 제동을 거는 듯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높여가는 달러-엔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은 다소간 넓어진 듯하다.

하지만 보다 편안한 환율 하락을 위해서는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이 먼저 줄어들어야 할 것 같다. 삼성전자가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 산업 선두권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고점 논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물론 AI의 가파른 침투를 감안할 경우 미국 기술산업의 경쟁적인 투자확대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반도체 수출의 고공행진도 아직은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발표가 몰려 있는 7월 후반의 성적표와 향후 가이던스에 따라 국내 증시도 방향을 다시 타진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95	1525
달러엔	161.0	163.0
유로달러	1.135	1.150

한편 빅테크 실적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장은 금통위를 통해 통화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를 읽어보려 할 것이다. 사실 직전 금통위를 통해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이미 확보했고 미국에 앞서 유럽, 일본, 뉴질랜드 등도 먼저 금리를 올린 만큼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도 않다. 오히려 관건은 한은이 극단적으로 50bp의 빅스텝을 밟거나,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다. 만일 원화 가치 절하가 펀더멘털과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고, 물가 안정의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할 경우 과감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사실 전통적인 성장과 물가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한은의 금리인상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진다. 올해 한국 GDP는 반도체 호황으로 3%를 넘어설 여지도 적지 않은데다, 유가 급등의 여파로 CPI는 이미 3%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경기후퇴의 위험이 크지 않은 만큼 물가 안정으로 정책 중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강도인데, 이는 자산가격과 환율의 안정에 대한 가중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아직 불안정한데다 원화 환율이 타통화 대비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에서 한은이 단발성 25bp 금리인상으로 종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향후 1년간 100bp 가량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시기 분산을 구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정책은 예상을 넘어서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 50bp를 올리거나, 25bp 인상하더라도 백투백을 시사하는 전략적 선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강력한 통화긴축 시그널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할 소지도 있고,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술과 성장이 주도하며 환율과 금리차간 연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은이 과감한 선택에 신중해야 할 필요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은이 25bp 인상을 단행하되, 백투백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시장의 선반영을 유도할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닉스 ADR와 금통위라는 변수를 두고 1,500원선 공방전이 전개될 듯하다.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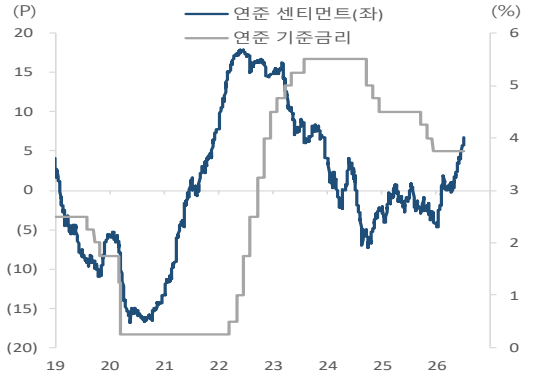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방망이 길게 잡은 한은, 백투백 노리나?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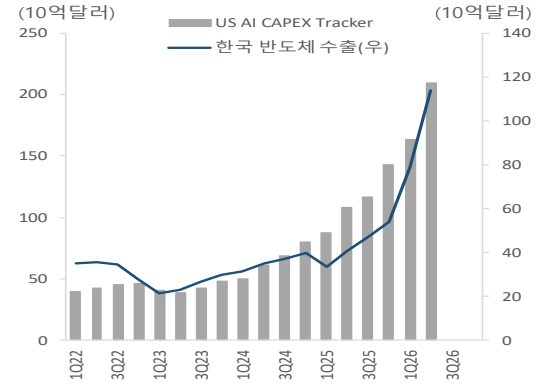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다소간 완화되었지만 AI가 유발한 구조적 변화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보수적인 연준 분위기 형성

반도체 고점 논란 가열되고 있지만 빅테크의 AI 투자 경쟁도 진행형. 실적 발표 앞두고 기업들의 관련 자금 조달 및 가이던스 등에 민감해질 듯

여전히 보수적인 연준의 센티멘털



빅테크 투자에 연동하는 한국 반도체 수출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 경계감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지표상 확인에는 시간 필요. 경기 호조로 인한 수요측 물가 압력 작동시 하방 경직적일 듯

중국 2Q GDP 4.5% 내외로 정부 목표치에 충족하는 수준 예상. 수출 호조세 보이고 있어 부동산 위축세 진정될 경우 성장 기대 높아질 소지

유가 하락에도 아직 물가 지표는 상방 압력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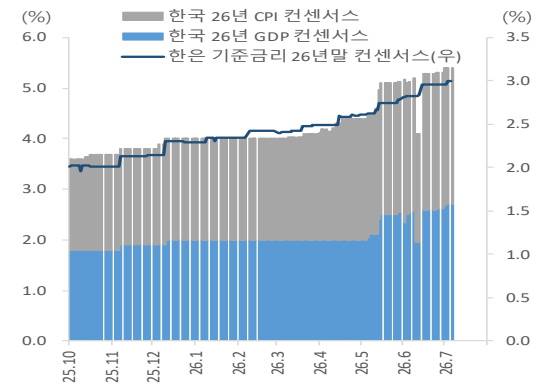
부동산 시장에 따라 달라질 중국 경제성장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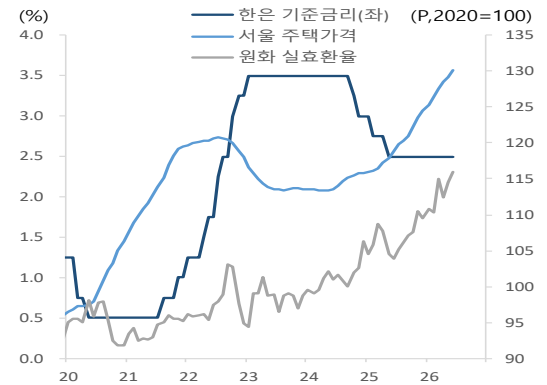
수출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물가도 상승.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단행한 만큼 한은도 긴축기조 전환

7월 금통위 25bp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50bp 혹은 연속 인상 가능성 경계하는 분위기. 주택가격 및 환율 불안시 보다 공격적인 행보 우려

금리인상으로 긴축 전환 예상되는 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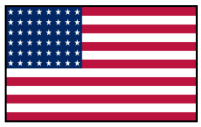
부동산 및 환율에 따라 연속 인상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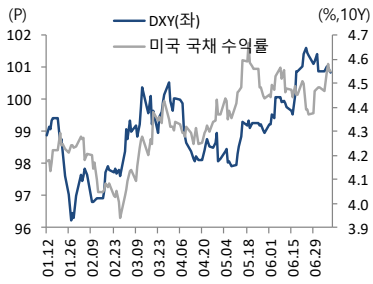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방망이 길게 잡은 한은, 백투백 노리나?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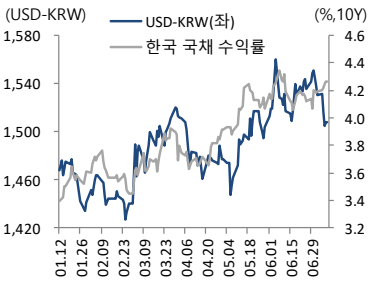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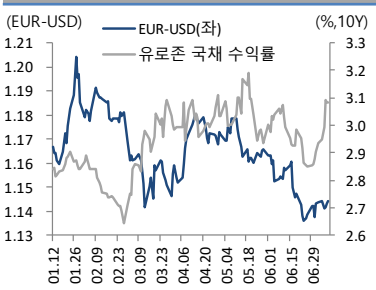
리뷰	미국과 이란이 단기적인 충돌로 종전 기대감 다소 희석되었지만 FOMC 의사록 안도감 등으로 DXY 소폭 하락. 미국과 이란 모두 확전 원치 않아 유가 및 환율 영향력 제한. 유가 하락으로 연준의 급격한 긴축 전환 우려감도 다소간 희석
프리뷰	미국 PPI의 고공행진 아래 핵심 CPI도 하방 경직적인 모습 보이며 달러 하락을 제한할 소지. 실적 시즌 돌입에 따라 미국 빅테크 및 AI 주식의 등락폭 커질 가능성. 여전히 양호한 실적 기대되나 과잉 투자 및 가이던스 등에 시장은 민감해질 듯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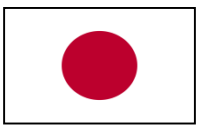


리뷰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물리적 공격을 주고 받고 휴전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유가 다시 안정되고 환율에 미친 영향도 미미. 그보다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 자금 유입 기대감이 환율 하락을 견인하며 주중 한때 1,500원 하회
프리뷰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자금 유입 따른 환율 하락은 단기적 변수로 평가. 기존의 시장 관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 다만, 코스피 랠리가 주춤해진 것은 외인 자본의 리밸런싱도 감소시켜 외인 자금 이탈 압력 완화로 환율 상승도 완만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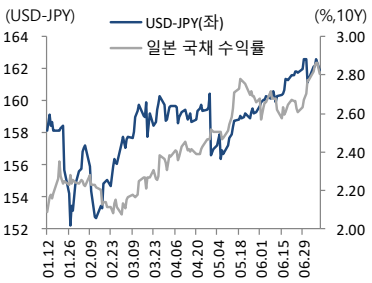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지난 한 주 1.14대 초반의 좁은 범위에서 방향성 상실한 채 사실상 횡보.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상선을 공격하며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물리적 공격을 주고 받는 과정에 유로화가 1.14를 일시 하회했지만 움직임이 크지 않았고 이내 반등
프리뷰	통화정책 측면에서 미묘한 온도차로(美 금리 인상 기대 커진 반면, ECB 추가 긴축 기대 약화) 유로화가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 압력은 완화. 14일 발표될 미국의 6월 CPI에 단기적 급등락 거치겠지만 강한 방향성은 아닐 듯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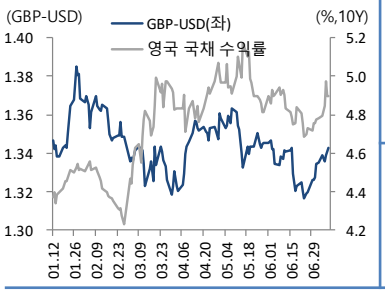
리뷰	7월 초 163엔을 바라보던 환율이 2일 발표된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부진에 160.5엔까지 하락했지만 미국 연휴 거친 뒤 상승을 재개. 미국과 이란이 다시 물리적 충돌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 162엔 회복한 뒤에는 상승 탄력 완화
프리뷰	엔화 수준이 40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지만, 재정 확대로 인해 통화정책에 제약(fiscal dominance)이 불가피하다는 심리로 인해 엔화 약세 압력 유효. 헤지펀드의 엔화 약세 베팅도 19년 만에 최대로 증가. 일본 당국의 기습 개입 리스크는 존재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방망이 길게 잡은 한은, 백투백 노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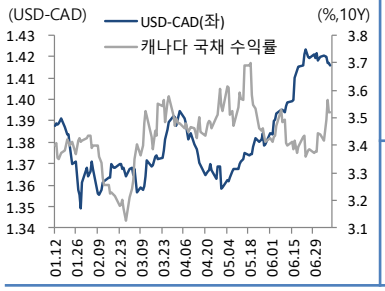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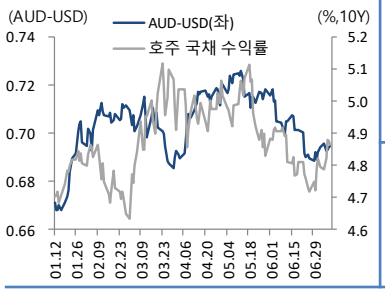
리뷰	6월 24일 1.314에서 하락을 멈춘 GBP가 7월 들어 강세 연출. 사실상 횡보한 유로화와도 괴리. 올해 영국으로의 M&A 자금 유입과 버넘(Burnham) 총리 후보의 재정 준칙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GBP 상승을 뒷받침
프리뷰	7월 17일경 버넘의 리더십이 확정될 전망. 향후 임명될 재무장관의 소신이 관건. 재정건전성 중시하는 인물일 경우 GBP에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근 상승폭 반납할 듯. 다만, 재정준칙 준수 기대를 처음부터 훼손하지는 않을 것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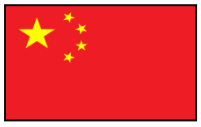
리뷰	상승하던 환율이 6월 24일 1.425 앞에서 멈춘 뒤 반락했지만 1.42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 이번 주는 사실상 횡보에 가까웠고, 그간 CAD 약세의 주요 배경이었던 미국과 캐나다의 국채 금리(2년물) 격차가 6월 말부터는 확대 추세 중단
프리뷰	CAD 약세 부추기던 미국과 캐나다 금리 격차 확대 추세가 잠시 중단됐지만 14일 예정된 미국의 6월 CPI는 리스크. 한편,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협정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사실상 매년 협상 방식으로 전환했기에,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CAD에 부담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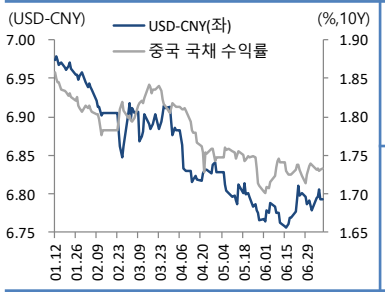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5월 중순부터 하락한 AUD가 7월 들어 반등했지만 탄력 약해 0.70 회복도 버거운 양상. 그 전까지 뚜렷했던 AUD 강세 동력을 회복하지 못했음.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에 불구, 반등했던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서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프리뷰	올해 5월 초순까지 AUD 강세를 이끌었던 원자재 수요 및 RBA 매파 기조가 동시에 퇴색하며 AUD도 힘을 잃은 상황. 당분간 AUD 방향성은 USD에 크게 의존하며 상단 제한될 가능성 높으며, 14일 예정된 미국의 6월 CPI가 단기적 관건

USD-CNY(중국 위안)





리뷰	7월에는 환율이 등락 거듭하면서도 방향성 상실. 주 후반 역외 환율(USD/CNH)이 6.79 하회하기 시작. 9일 발표된 중국의 6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4%를 상회했지만 CPI는 다시 둔화되며 시장 예상(1.1%)을 소폭 하회한 1.0% 기록
프리뷰	중국 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한 가운데, 글로벌 AI 투자 붐이 중국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는 배경으로 해석. 위안화 국제화 기대감도 더해져 중기적인 위안화 강세 기조는 유효하다는 판단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방망이 길게 잡은 한은, 백투백 노리나?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7-14-2026 3:00	US	Federal Budget Balance	Jun	--	-$292.6b	75
7-14-2026 9:30	AU	웨스트팩 소비자기대지수 MoM	Jul	--	-2.90%	83
7-14-2026 10:30	AU	NAB 경기기대지수	Jun	--	-14	74
7-14-2026 21:30	US	CPI (전년대비)	Jun	3.90%	4.20%	96
7-14-2026 21:30	US	Core CPI YoY	Jun	2.90%	2.90%	77
7/14/2026	CH	수출 YoY	Jun	18.40%	19.40%	81
7-15-2026 5:00	US	순장기TIC흐름	May	--	$103.1b	72
7-15-2026 8:00	SK	실업률 SA	Jun	--	2.80%	87
7-15-2026 11:00	CH	GDP (전년동기대비)	2Q	4.50%	5.00%	96
7-15-2026 11:00	CH	소매 매출 연초대비 전년대비	Jun	--	1.40%	63
7-15-2026 11:00	CH	광공업생산 YoY	Jun	4.60%	4.50%	88
7-15-2026 11:00	CH	고정자산(농촌제외) YTD YoY	Jun	-5.20%	-4.10%	60
7-15-2026 21:30	US	PPI 최종수요 YoY	Jun	--	6.50%	75
7-15-2026 21:30	US	PPI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전년비	Jun	--	4.90%	70
7-15-2026 22:45	CA	캐나다 은행 금리결정	15-Jul	2.25%	2.25%	97
7-16-2026 21:30	US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Jun	0.30%	0.90%	94
7-16-2026 23:00	US	NAHB 주택시장지수	Jul	35	35	52
7/16/2026	SK	BOK Base Rate	16-Jul	2.75%	2.50%	97
7-17-2026 21:30	US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Jun	--	1.90%	79
7-17-2026 21:30	US	주택착공건수	Jun	1320k	1177k	89
7-17-2026 21:30	US	건축허가	Jun P	1408k	1410k	62
7-17-2026 22:15	US	광공업생산 MoM	Jun	0.20%	0.10%	89
7-17-2026 23:00	US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Jul P	51.3	49.5	95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506.7	221.7
고가	1,513.5	222.9
저가	1,498.5	221.4
종가[1)]	1,501.4	221.4
전일비	-4.7	-0.1
평균환율	1,507.1	222.4
NDF(1M)	1,498.3	
거래량	(억불)	101(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99.30	-8.40
JPY/KRW	926.94	-0.36
EUR/KRW	1,710.88	-10.31
GBP/KRW	2,008.96	-10.07
AUD/KRW	1,042.09	-3.08
CAD/KRW	1,058.90	-3.96
USD/JPY	161.68	-0.70
EUR/USD	1.1416	-0.0014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3.406	-0.023	3.010	-0.03
2Y	3.748	-0.011	3.240	0.01
3Y	3.859	-0.012	3.360	0.03
4Y	3.921	-0.015	3.425	0.03
5Y	3.959	-0.018	3.465	0.03
7Y	4.012	-0.017	3.515	0.01
10Y	4.060	-0.017	3.425	0.01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90	-0.01
통안 1년	2.18	-0.00
통안 2년	3.71	-0.01
국고채 3년	3.77	-0.01
국고채 5년	4.01	-0.02
국고채 10년	4.24	-0.03
국고채선물(3년)	103.07	-0.03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25	-10.00	2.78%
3M	-375	-20.00	2.74%
6M	-770	-20.00	2.91%
1Y	-1,440	30.00	3.11%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4.05	-0.009	4.05	-0.001
2Y	4.21	-0.010	4.07	-0.007
3Y	4.24	-0.017	4.03	-0.013
5Y	4.30	-0.023	4.02	-0.019
10Y	4.56	-0.018	4.14	-0.019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7,475.94	+184.03	+2.52%
미국 DOW	52,637.01	+149.60	+0.29%
중국 상해종합	3,996.16	-40.43	-1.00%
일본 NIKKEI 225	68,557.73	+813.88	+1.20%
영국 FTSE 100	10,497.29	+24.84	+0.24%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71.41	-0.67
금 (선물)	4,113.70	-27.10
3M TERM SOFR	3.74	-0.02
3M EURIBOR	2.41	+0.03
KOR 5Y CDS	22.41	-0.07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